

한글서체
한글서체
한글서체

<3>

좀더 자극적인 장면을
불해 시청자들을 불잡아
두려는 TV의 시도는
불개편 이후 교양 다큐멘
터리에서도 시작됐다.
KBS 1TV가 신설

선정-폭력장면 부각 심하다

지적력을 받았다. 비에 젖
은 「정인숙의 속살」이
드러나고 하얀 원투막
같은 초막에서 벌어진
장사공과 러브신은 상
당히 자극적이었다. 제
목과는 달리 그녀가 남
진 것으로 전해지는 「비
밀수첩」을 찾아내지도
못했음뿐 아니라 정인숙
에 관해 이미 논쟁했던
이야기에서 별 진전도
없었다.
미제사건의 TV공개

녀의 다리가 엇갈리는
모습을 아래에서부터 클
로즈업해 지나치는 지
적력을 받았다.
放送委 두번 주의
MBC의 신설 「경찰
청 사람들」도 택시안에
서 이뤄진 성폭행장면,
강간범으로 출소한 범인
이 복수를 결심하면서
승리로 수추변을 깨는
장면들을 너무 「실감나
게」 재현했고 선정적 폭



다큐
어린이

한 「다큐멘터리」가 장인
김지하의 「오전」, 거창
양민화산전 「오전」, 다부
면서 빠른 시일내 그를
잡았고, 「공공채널」은
평가를 받고 있다. 「다
큐멘터리」와 「다큐」가 혼
합된 「이브닝」, 그러나
지난달 방송한 「2부작
정인숙의 비밀수첩」에
서 정인숙의 애정행각을
지나치게 부각시켰다는

수사 포도인 KBS 1
TV 「사건25시」도 시청
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
얻고 있는 포도인 수배된
자해공을 단 「꽃배」의
검거에 결정적 기여를
하기도 했다. 그러나 지
난달 「사건25시」는 카바
래에서 「꽃배」의 범행대
상으로 그를 남자와 춤
추는 장면 재현도 중남

력적인 이 장면을 방영
한 「대가」로 방송위원부
터 2번의 주의를 받았
다.
아이로서 바지내려
교양 다큐멘터리에서
의 자극적 장면은 지난
달 11일 방송된 MBC
「PD수첩」에서 절정
에 달했다. 어린이 성폭
행을 주제로 다른 이 프

시청자 확보를 위해 다
큐멘터리에도 지나치
게 자극적인 장면들이
등장, 물의를 빚고 있
다(사건은 기사 속의
특정 사실과 관계 없
음).

수입만화 경쟁심-호전성 부추겨 어린이 시청자 붙들기 「돌출-자극」 의존 다 큐

로 「노위」는 아연발판
트 앞에서 남자가 바지
지퍼를 내리려는 자세를
연출, 시청자들을 경악
시켰다. 이날 남자중고
교생을 둔 학부모들의
항의전화와 언론사에 빚
발했다. 「PD수첩」은
방송위원부터 포도그림
및 연출자에 대한 경고등
중징계를 받았다.
교양이나 다큐멘터리
의 특성상 같은 시간대
상대채널에서 방영되는
드라마나 소문의 시청률

에 밀릴수밖에 없고 이
를 조금이라도 만화하기
위해서는 약간의 「특수
처방」이 불가피하다는
게 일선 PD들의 얘기
다.
시청률 낮아 내대
어린이포도의 경우 전
체 방송시간에서 차지하
는 비중이 절대적으로
낮다. 「전」 접어들고라
도 신탄 오락평화정상을

보이고 있다.
12년간 유아포도의 대
명사로 군림한 MBC
「뽀빠이」와 어린이 교양
과학교육의 가능성성을 충
분히 보여줬다는 KBS
1TV 「과학탐험대」가
시청률에 밀리면서 이번
개편에서 제외된 사례는
어린이에 대한 방송사들
의 대표적 「불친절」 무관
심으로 기록됐다.
KBS 2TV 「재미
있는 동물들의 세계」, MB
C 「놀라운 세계여행」, S
BS 「신나는 우리 세상」
등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면
추진할만한 「품목」이 없
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
의 진단이다.

우리실정과 안목이
미려를 배경으로 안광
들과의 싸움을 그린 「아
벌한천대」 「출출한수면」
「미래유사 불타는천」에
는 인명상징이 지나친
폭력장면이 등장하고 있
으며 스포츠 만화인 「도
전자」 허진케인 등에서는
화장 무제한 경기장면과
지나친 경쟁심식이 문제
가 되고 있다. 신탄 경
우에는 「호재」하는 여자
모습, 한 여자와 두 남
자의 삼각관계, 여아의
복유장면, 출처보기를
방송국기도 했다.
미국 고등학교가 무대
인 MBC 「배달리힐스
아이」는 지나치게 화
려한 고교패션쇼, 부정
적인 어머니상 묘사 등이
로 우리 실정과 는 동떨
어진 포도인 판정받고 있
다. 부정적인 성관계를
포함한 남녀간의 애정
이 방송위원회의 심의에
따라 삭제됐지만 청소년
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
대목이 돌출되어 부
어지고 있다(梁泳彩)